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 근절

평화당 유성엽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안 발의
성공보수 약정·수령 금지 규정 위반시 형사처분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입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위 법관·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입의 대가로 2~3년 사이에 수임액 원의 수입료를 수수하면서 공직 내 인맥을 동원해 전화 변론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로 나타나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만연하면서, 돈을 벌려는 법조계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

의 실형을 받지 않고, 돈 없으면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해 실형을 받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재 우리나라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또한, 현행법상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재판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 퇴직일부터 1년은 각 지위별 차등적용(대법관 5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3년, 이외의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그 밖의 공무원 1년)



하여 강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 강화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 불가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 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시 논란이 되었던 자신과 남편이 수임액 원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하여 직접 진행했던 재판건만 보더라도 법조계는 이미 공과 사가 상실된 지 오래 되

었으며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라며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타락의 뿌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현재 수입료 제한 규정이 없는 법조유사직역의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까지도 단계적으로 뽑아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법조계에 만연되어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관, 검사 등을 퇴직한 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 및 기간 등을 확대·연장하고, 수임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자료 제출 규정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등의 제재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도서·벽지 어린이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경내 관람을 하고 있는 도서·벽지 어린이들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관람 온 어린이들은 강원 모산초, 전남 두원초, 충북 오석초·노은초, 전북 임실기림초, 경북 금천초등학교 등 전국 도서·벽지 초등학교생 200여 명이다.

올해 정부 대북 쌀지원 최대 30t 가능할 듯

순수 남는 쌀 최대 30만 추정... "정부 비축미로 시장 수급에 영향 미미"

대북 식량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에 보낼 수 있는 국내산 쌀 물량은 최대 30만(톤) 가량이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기구를 거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당장 쓰일 수 있는 물량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제공을 논의함에 따라 향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이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연철 통일

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원 방식이나 시기, 규모는 검토해야 할 게 많지만"이라며 "정리가 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은 약 130만 가량이다. 이 중에서 국내산 쌀은 90만 정도가 된다. 이 90만 중에서 군수용이나 복지용,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물량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남는 물량은 30만 인푼이 된다. 말 그대로 남는 쌀이기 때문에 국

내 시장의 수급상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물량은 정부가 비축해둔 쌀"이라며 "정부가 시장에서 구입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수급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 식량 지원이 성사되면 2010년 이후 정부 차원의 지원은 처음이다. 과거 1995~2010년간 정부 직접 지원 방식으로는 총 265만5000t 가량의 식량이 차관 형태나 무상으로 지원됐다. 금액으로 치면 약 1조1015억원 가량이다. /뉴시스

"정부 국정기조 방향 굳건히 유지돼야"

민주 이인영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대내적 또는 대외적 여건을 탓하며 우리 정책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정기조의 기본방향은 더욱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경제지침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무역 질서의 재정립 과정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리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정책 방향에 확신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냈으면 한다. 물론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노력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힘겨워하는 민생을 보듬는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국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과정에서 첫째로 민생, 둘째로 민생, 셋째로 민생의 기본 정신을 갖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내년 총선 나갈 것"

민주 입당 윤준병 전 서울 행정부시장
정읍·고창 지역 출마 의사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한 윤준병(58)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내년 제21대 총선에 정읍·고창 지역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윤 전 부시장은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결사 윤준병,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읍·고창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 전 부시장은 "오랜 고민 끝에 지난 30년간의 공직생활을 접고 정읍과 고창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특히 서울시의 많은 난제를 해결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치인으로서 주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지역의 일군으로써 역할을 하고 싶고 그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정읍 고창의 경제기반을 가다듬고 소비도시로의 정비, 관광도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며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이 지역 민주당 후보 경쟁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경쟁자가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역위원장 응모 등 당 절차를 통해 후보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밝혔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 같은 지역 구이자 상대당 경쟁자로 맞서게 될 현역 3선의 민주당 평안도 유성엽 의원에 대해서는 "유 의원의 동시 출마로 출구로 활로가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 입문을 하기 전부터 의논하고 만나기도 했다"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윤 전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을 찾아 입당 절차를 밟았다.

윤 전 부시장은 전주와 서울대 독어독문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전북도를 거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문건위 춘향제 현장 의정활동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9일 남원에서 진행중인 춘향제 현장을 방문해 축제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문건위원들은 시 관계자들을 만나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축제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남원시 천거동에 위치한 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춘향제 운영상황 및 예술 공연분야를 꼼꼼히 점검하고, 무대·음향 조명 등 부대시설과 그밖에 시설물 안전관리 상황을 파악했다.

정호윤 위원장은 "남원 춘향제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축제로, 전국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축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년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춘향제가 시군 대표 축제를 넘어 전국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로 제80회째를 맞은 춘향제는 '광한춘몽(廣寒春夢)'이라는 주제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원 광한루원 및 요천 일원에서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합참 "北, 미사일 기지 있는 평북 신오리서 발사체 발사"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쏜 지 닷새 만에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은 오늘 오후 4시30분경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발사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발사체의 수량이나 제원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평북 신오리 일대에 스키프와 노동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S) 산하 전문포털 '분단을 넘어'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오리 일대에는 연대 규모의 노동 1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배치돼 있으며, 이곳에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노동미사일 여단 본부가 자리잡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정술유도무기와 240mm 발사포, 300mm 대구경방사포 등 10~20여발을 발사한 바 있다. /뉴시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ch.279

ch.285

ch.253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